

## 허세욱 선생님 소천 1주기 추념문

김 혜 준(부산대학교 중문과 교수)

선생님께서서는 1986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약 13년간 고대에 재직하셨다. 이 기간에 선생님께서 배출하신 제자는 수 백 명에 이른다. 그 중 박사학위자로는 김혜준·이기면·홍승직·이옥연·장동천·정성은·황정희·박재범·김소현·강선화·김종진·배영신 등 12명이 있고, 석사학위자로는 박사학위자와의 중복자를 제외하면 정우광·차진현·이광순·도수화·의건미·박준수·김명석·신정수·성호연·김화진·이현복·김종석 등 역시 12명이 있다. 이 중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진 않지만 학번, 과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내가 선생님의 고대 만제자인 셈이었다.

내가 선생님께 지도를 받게 된 것은 1988년부터였다. 물론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그보다 조금 거슬러 올라간다. 내 기억으로는 1986년 12월 타워호텔에서 있었던 중국현대문학학회 제1회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당시 이 학회 초대 회장이시던 선생님을 먼발치로 뵈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인 1987년 3월초 홍콩에서 처음으로 직접 뵈었다. 그 때 나는 중문대학에서 단기 연구생 신분으로 지내던 터라 선생님께서 공식적으로 고대에 발령이 나신 것도,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강의를 시작하지 않으신 것도 전혀 몰랐다. 다만 중문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오승렬 선생 부부가 권하여 그들과 함께 카이탁공항으로 선생님 부부를 마중 나갔고, 그 며칠 뒤 한두 번 선생님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해 연말 모교 박사과정에 합격한 뒤 이동향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 선생님들의 조언에 따라 비로소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게 되었다.

내가 선생님을 옆에서 직접 모시면서 가르침을 받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91년 1학기에 부산대학교에 부임했으니까 겨우 3년 정도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나 개인에게도 그리고 선생님과과의 인연에서도 참으로 충실한 시절이었다. 박사과정생으로서의 대학원 수업, 시간강사로서의 학부 강의, 중한대 사전편찬실 연구원보로서의 사전 작업 등 보통 인생의 몇 배를 사는 듯한 상황이었다. 특히 선생님의 과목이 있는 날에는 더욱 그랬다. 그 전날 선생님이 주신 과제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고, 이튿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다시 온 종일 편찬실에서 근무하다보면 인스턴트 커피를 하루에도 열 몇 잔은 마셔야 했다. 만일 선생님의 격려와 훈도가 없었더라면 아무리 청년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 당신의 문학, 학문, 교육, 인생은 대략 80 권에 달하는 시집, 산문집, 번역서, 학술서, 교과서, 사전 등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된다. 하지만 선생님을 가까이서 접해보지 않은 후학이나 일반 독자라면 구체적으로 실감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느 해 학기말이었다. 사제 간에 함께 도봉산에 오를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서 우리 모두에게 볏을 홍자를 운자로 내주시면서 시 한 수씩을 지으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날 나는 대낮에 등산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밤을 지새우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산 후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면서 아주 여유롭고 흡족하게 제자들의 시를 품평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나는 당신의 문학과 학문과 교육과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아마 선생님의 이런 면모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고대의 여러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은퇴하신 후에도 여전히 선생님을 모시고 매월 산행을 했던 것으로 안다. 나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 한 번도 참석해보지 못했지만, 김종석 김명석 등 여러 동문들은 잊지 않고 내게도 가끔 연락해주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산행 때마다 때로는 당시를 외우고 때로는 고시를 짓고 그랬을 것이다. 물론 하산 후 시원한 국수나 한 그릇 할라치면 선생님의 속도와 양을 좇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아, 지금 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사형제들이 둘러앉아 선생님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듣던 그 때가 그립다.

선생님의 제자는 모두 알다시피 고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1990년대 초 선생님의 소개로 박사논문 자료수집 차 重慶 北碚의 西南師範大學에서 한 달 남짓 방문학자로 지낸 적이 있다. 그 때 시를 쓴다는 몇몇 대학원생들이 선생님을 잘 안다면 찾아와 어울리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께 수학한 동문들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방문하기 직전에 객원교수의 자격으로 오셔서 한 달 남짓 집중적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고 한다. 후일 선생님께 직접 들은 바로는, 강의는 종종 식사 자리 술자리로 이어졌고 심지어 자정을 넘기기도 해서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그 당당한 풍채를 이끌고서 專家樓의 담벼락을 월장하셔야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에 홍콩에서 그들 중 한 명인 시인 겸 교수인 江弱水를 만났고, 그로부터 당시 선생님께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은 모두 시인, 학자, 편집자 등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제자로서 선생님의 별세 소식을 서로 전하면서 몹시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桃李滿天下’라, 선생님야말로 온 천하에 제자가 가득한 분이셨다.

선생님께서 소천하신 지 1년이 넘었다. ‘사후 효자’가 아무 소용없듯이 지금 내가 아무리 절절한 말로 선생님을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원래 스승에게 보은하는 최상의 길은 ‘靑出於藍而靑於藍’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아무래도 불가할 듯싶다. 선생님의 천품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필경은 선생님을 모신 기간마저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다만 선생님의 드높은 자리를 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혹여 나의 동문 사제들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래야만 선생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나와 같은 이도 선생님과 유족께 다소나마 덜 송구하지 않을까싶다.

\* 선생님의 별세 1주기 추모 특집호를 마련해준 중국어문연구회 최규발 회장 및 관계자들 여러분, 추모 논문을 게재해준 동문 사형제와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꾸려준 장동천 교수에게 충심으로 감사한다.